

자주 보지 않아야 보이게 되는 인과관계(因果關係)들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안 수 길

[세기를 두고 남아나는 옛 가르침의 영향 - 자연과학 바탕 - 〈 〉속 부분은 패스 꺾]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자는 ‘영어소설읽기 5×5 기법’이라는 것을 잘 권유한다. ‘영어소설 읽기 5×5’란 〈아직 실력이 모자라〉 영어소설을 읽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다소 무모(無謀)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상상력 소설읽기’를 시키는 것이다.

1. 영어소설 하루 5쪽만 읽어라

우선 대화부분도 종종 들어있어서 친근성이 있어 보이는 영어소설을 하나 선택(소설이 평서문(平敍文)만으로 글자들이 뻑뻑하게 들어 서 있으면 숨이 막힌다)해서 한 바닥(페이지)에 10개가 되건 20개가 되건, 이는 단어만을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은 이’가 짐작되는 대로 줄거리를 꾸미는 것이다.

그리고 영어사전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으면서 1페이지에서 단어 5개 이상은 찾지 말고, 책을 ‘손에 잡았다하면 최소한 5페이지 읽기’를 하는데, 이 ‘잡았다하면 최소한 5페이지’라는 것은 5페이지라는 물량을 통해 되도록이면 많은 단어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5페이지를 빨리 읽는다는 것은 주마간산(走馬看山)격이 되는 것이지만 책을 읽기 시작했다면 그 정도의 단어량에 노출되어야, 되풀이 ‘만나게 되는 단어’들도 많아지고, 미지(未知)의 단어나마 되풀이 만나게 되니까 그럴수록 그 뜻이 궁금해져서 사전에서 찾게 되면 쉽게 기억하게 되는 소지를 마련하는 한편, 기지(既知)의 단어도 한 번 더 보게 하므로 해서 뜻을 되새기게 해, 그 단어의 기억을 보장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두뇌에 입력되어 새로 정착(定着)되는 단어량’과 ‘잊어버리게 되는 량(量), 즉 알고 있던 것인데 차차 잃어버리게 되는 어휘’를 비교했을 때 만나게 되는 단어량이 많아야 전자(前者)가 많아진다. 즉 머리에 남게 되는 양이 많아지고, 따라서 학습에 진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 필자가 흔히 비유를 하는 것이 ‘자전거 배울 때’이다. 자전거는 움직이지 않고 서있으면 안되고 어느 정도의 속도가 있어야 쓰러지지 않는 다는 것이 그 기본이다. 즉 최소한의 속도가

있어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설읽기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사전을 많이 찾거나 해서> 아까 말한 5페이지라는 ‘최소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입력되는 것보다 잃게 되는 단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스스로 과(課)해야 하는 최소독서의 량(量)이 있게 되는 것이다.

2. 처음 읽을 때에는 무대파악, 두 번째에 제대로 감상

그리고 반드시 같은 소설을 두 번째 읽어야 한다. 처음 읽을 때는 그 전개되는 이야기의 배경파악과 내용감상을 한꺼번에 하겠다고 무대도 모르면서, 즉 전개배경도 모르면서 달려드는 셈이지만 두 번째 읽으면 전개되는 이야기의 대강의 뼈대를 알고 있으니 <추가해서 찾아야 하는 최다> ‘5단어’의 선택도 쉬어지고 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 소설을 음미(吟味)할 준비가 된 셈이라는 것이다.

(사실은 두 번째 읽고 나서 다시 세 번째를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한 말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하지를 못한다. 그렇지만 단어들을 잘 아는 제나라 소설의 경우도 인생을 살다가 20년, 30년 후에 세 번째 읽으면 그 동안의 인생경험 등으로 해서 읽어내게 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학생 때 한번 읽고 끝 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혹시 세 번째 읽는다면 그 효과는 크다. 한 작가의 문장 스타일까지 숙지하게 되어 ‘읽은 이’ 본인의 글에도 영향을 주는 등 커다란 지적(知的)자산이 되는 것이다.>

인생 살아가는 것도 영어소설 시독(始讀)/시독(試讀)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데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한 자전거의 최소속도가 아니고 ‘관찰(觀察)에 있어서의 표본화 문제’로서 관찰과 관찰 사이에 긴 시간간격을 두어야 오히려 그 평균치의 기복(起伏)이 보이게 되는 느린 이행(移行)의 현상들도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원래 사물의 뒤에 흐르는 원리의 파악에는 긴 시간 간격으로 표본화(標本化)하는 것이 유리한 때가 있다. 다시 말해 지나치게 자주 관찰하면 오히려 본질이 잘 안 보이고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끊어서 그 사이 일어난 변화를 건너뛰면서 앞뒤 비교를 해야 진실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다.

너무 촘촘하게 지엽(枝葉)을 따라가면서 관찰하면 거시적 기복을 꿰뚫어 보는데 오히려 지장이 있고, 그래서 “10년, 20년 단위로 띄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의 깊은 속셈까지 들어나고 말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경위를 알게 되는 것이다. 10년, 20년이 지나 자질구래한 ‘티격태격’이 모두 다 지난 다음에야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드문드문 띄어서 ‘징검다리’ 식으로 관찰하므로 해서 느리면서도 더 커다란 흐름의 진정한 모습이 보인다는 뜻이다.

3. 천천히 드러나는 인류 지혜 성숙의 과정

지난 세기에, 그 징검다리식 관찰을 통해서 필자가 파악하게 된 결과 중 하나가 “세계의 역사는 <장구(長久)한 지난 날 인류가 경영해오는 적나라(赤裸裸)한 ‘생(生)’의 실정을 감안해> 실현 불가능한 ‘이상사회 건설’을 꿈꿨다가 그 꿈이 깨지고, 또 한편 ‘개혁’이란 이름으로 뭔가 반항하고 싶은 젊은이들의 장난기가 현실을 만나 점점 스러지게 됐던바 인류의 정신적 성장의 한 고비”였다는 결론이다.

지난세기에는 산업의 거시적 발달이 있었고 이에 따른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해서 인류에게 시간과 정신의 여유가 생겼는데, 따라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점점 ‘이상향’을 꿈꾸기 시작했고, 그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실적이 못 될 정도로 지나치게 완벽한 것이 되고 말았다. 결국 배부른 헛꿈이었던 것이다.

현실과 사회실정을 모르고 아름답기만 한 꿈을 가져봤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의 선의(善意)를 전제(前提)한다고 해도 도대체가 이룩될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지난 20년간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진보세력은 몇 개의 ‘실험’이 실패였음을 두 차례에 걸쳐 스스로 인정했다>

4. 산업의 발달로 시간여유 생겨

그간 기계산업의 발달과, 농업의 발달로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교육과 문화에 들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따라서 평균교육 연수가 길어져 인류는 옛날에 비해서 어떤 뜻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교육’을 받게 됐고, 따라서 필요범위를 넘어선 대량의 많은 지식을 갖게 됐다.

이와 같은 과당(過當)교육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긴 나머지 새로 배우게 된 이·공학적 논리만을 믿고, 지난 날 조상들이 경험을 누적해서 이룩한 사회율법 등, 종족의 슬기로움으로 빚어 만들어 준 여러 정신자산을 경시(輕視)하기 시작했으며, 사회제도와 관습에 숨어있는 ‘단군질서(檀君秩序)’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네들에게 ‘고와보이는’ 꿈의 구현을 위해서 무리를 하고 남의 일에 부당한 간섭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남을 희생시키려고 하기까지 했는데, 그만큼 그들에게는 그 꿈들이 아름답고, 곧 실현될 것만 같았던 것이다. <예를들어 러시아 어느 소설에 나오는 것과 같이 고리대금(高利貸金)하는 노파를 살해해서 그의 돈으로 이상적인 사회사업을 하려하는 것 등이다.>

한편 인류가 이와 같이 해서 갖게 된 유희(遊休)시간에 머리를 굴리다보니 꿈이 점점 커졌고, 따라서 차차 현실을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젊은 계층, 그리고 서구의 문인들은 서방언론

네트워크를 통해 의견을 주고 받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전세계 지성인들이 하나로 묶이는 흐름이 생겼다.

그것이 ‘서방언론의 세계지배’의 시작인 것이다. 그들은 별 생각 없이 전체적인 흐름에 맡기다보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150년 동안 ‘동양’을 우습게 보았고, ‘아랍권 문화’를 경시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9·11 테러사건 때까지 그 경향은 견제 받거나 경고받는 일 없이 점점 커가기만 했다.

5. 서방언론의 세계(世界)지배

그 당시 그들에게는 반성하는 흐름도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동양에서와 같이 막연하게나마 ‘히늘’ 등 영적(靈的)이고 숭고한 원리를 믿는 문명이 아니어서 한자문명권의 ‘자숙’과 ‘극기’라는 것을 몰랐다. <동기는 어찌됐건 서방종교의 근본인 공포와 복종이 아닌 극동권의 ‘자숙(自肅)·극기(克己)’라는 것은 행동하는 본인의 능력이고 자질이고, 복(福)됨인 것이다.>

그 후 세계를 크게 분열시키게 될 ‘지구단위 분쟁의 씨’가 서방언론의 세계지배 시작과 함께 서서히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때마침 1947년 ‘KON-TIKI’라는 갈대배(Reed boat)로 대양을 건너는 시도(T. Heyerdahl)가 있었는데 그 향해 상황이 당시 보급되기 시작한 전신망을 통해 전보의 형태로 시시각각 중계됐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열광(熱狂)하기 시작해 당시 과학·기술의 첨단으로써의 ‘통신’의 발달에 도취하다 보니 러시아 등지에서는 그 무렵에 태어난 아이들 이름을 ‘Telegraph’로 한 부모들이 많았다고 한다. ‘과학기술’에 그렇게 심취했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정계/언론계에서는 세기가 바뀐 오늘날에 까지 과학과 기술 가치를 갖고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다.>

영국의 힐러리卿(경)이 히말라야 등반에 성공한 소식이 전신망을 뚫을 때도 ‘전신의 발달’이 가져온 열광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가 과학/기술 발달에 열광하면서, 점점 교통/통신망으로 묶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열광의 되풀이는 특히 젊은 층으로 하여금 때로는 지나친 ‘꿈’에 도취하게 만들었고 <world-wide enthusiasm>, 이와 같이 해서 생긴 이상추구 및 ‘개혁’ 성향의 투표자층에 군침을 흘리게 된 정치세력이 당연히 공중방송망에 눈독을 들이게 됐다. <결국 그 흐름으로 해서 오늘날의 TV대통령들의 탄생을 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진보성향 정치가들의 세력 확장 필요성으로 해서 ‘의견의 흐름’이 의도적으로 세계적

공감을 형성케 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민중선동의 무리(Demagogue)'들이 준동(蠢動)하기 시작해 일부 젊은이들에게 사치스런 '반항' 취미가 생겼지만, 근자에 와서 사람들은 우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러한 '뜻 없는 반항' 시도를 "저런저런" 하면서도 아무도 견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반항' 기조는 손쉽게 전체사회에 만연되게 됐다.

6.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러운 것'으로 잘못 만드는 일부 학생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결코 '악랄한 것'은 아닌데 대학교들의 '동아리' 학습은 항상 최악을 상상케 해서 우리의 역사를 덜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왔다. 일부 젊은이들은 현실을 떠나 '관념의 세계'로 고공행진(高空行進)을 시작해서 우리 역사를 '잘못되고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대통령까지 생긴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우리의 역사는 전체 인류역사에서 가장 온건하고 감칠맛이 있는 문화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작금의 전 세계적인 경제발달, 그리고 반대로 <인민들의 의욕저하로 생산성이 무척 낮았던> 소련의 몰락(1991) 등을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의 결함은 충분히 알게 됐다.

특히 이제는 21세기 초유의 개도국들의 汎지구적 GDP증가 현상(2005~2008)으로 지구촌 보수주의 대중(부자여서 하게 되는 보수가 아니고, 그나마 안정사회를 선호해서)의 급증을 보게 됐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는 끝난 것이다. 따라서 공산혁명의 꿈을 꾀던 젊은이들은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인생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미국정부 증진들까지 한국을 '부자나라'로 호칭하는 상황에서 객관적(客觀的)으로 사람들을 (광선도가 되기 전에는) 사회주의로 이끌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국에서도 '어른'과 '지도자'는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러나 숨어서 수작을 하는 책사들 역시 많아서 이들이 그들 숨은 위인에게 나쁜 '이름' 한번 붙여버리면 나머지는 언론의 잡귀들과 '시간'이 처리하곤 했다.

7. 한국의 이념가들은 현실의 냉혹함을 알아야

드골 프랑스 대통령(Charles De Gaule)을 그의 고향인 끌롱베(Colombey-les-Deux-Eglises)에 은퇴시키고 만 1968년의 학생 소요도 빠리 서편 '낭떼르'라는 교외에 신축한 대학캠퍼스와 그 주변 마을의 무미건조함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의 대수롭지도 않는 '데모'로 우습게 시작된 일인데, 그 후 정부가 시행한 '국민투표' 결과가 드골 장군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프랑스는

드콜 장군의 버림을 받게 된 것이었다.

〈그 후 프랑스는 드골級(급)의 지도력과 신념을 갖고 있는 거물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고, 그 때의 준순(浚巡, 주춤거림)은 국력을 약화시켰고, 프랑스의 이미지는 주저앉게 됐다〉

남한에서는 1948년 남노당 박헌영의 월북 이동 이후 조용하다가 〈소련이 미국을 감당하기 어려워했을 무렵〉 때를 놓친 사회주의 운동이 다시 시작(1970년대)됐는데 그것은 본격적인 사회주의 운동이라기보다 어른들이 싫어하는 마르크스/레닌 등 ‘좌익의 책’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여러모로 여유가 생긴 젊은이들〈후일의 ‘강남 386’ 등〉이 상술한 바 ‘꿈’과 함께 기성사회와 어른들을 괴롭히는 일에 재미를 붙이는 데에서 오는 사회반항 게임의 양상이 강했다. 즉 집권계층을 괴롭히고, 잘 사는 계급을 ‘집적거리기’ 위해서 하는 어리광과 장난문화의 일면(一面)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지난 10년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알 권리’를 말해왔지만 그것은 〈우리가 고용한〉 공무원들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가 아니고 일반 사무절차의 경우라면〉 이 알 권리 행사는 행정 업무에서 ‘불편한 시기(timing)’ 아닐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는 일이지 ‘알 권리’를 행정업무 기획도중에, 즉 업무추진 과정의 중간에서 함부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좌파와 언론 등으로부터의 공격이 세지면 더 발달된 사무절차와 더 완벽한 대응을 위해서 기구를 강화하고 더 우수한 공무원을 증원할 따름이고 그래서 정부행정의 비용은 커지는 것이다〉

물론 정부기관의 중요한 결정을 방해하고 파괴해서 국민들에게 나쁘게 인식시켜 이익을 본다고 믿는 것은 야당정치인들이었겠지만, 한편 그들이 미리 세뇌해서 사회에 깔아놓은 ‘꿈 많은 젊은이’ 들도 상당수 있는 듯하다.

그들은 ‘과도한 불평’ 이란 바탕 공기를 마시면서 자랐고, 그래서 심지어는 더 잘 살게 된 다음에 승용차를 사면서도 “그 회사는 파업이 잦고 해서 불량품이 많지 않겠느냐?”고 어른들이 말리는 회사의 제품을 오히려 ‘파업 잘 해주는 동지들로 보이니 도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가장 파업 많이 하는 회사의 차를 사는 ‘반항게임’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단순하게 “잘못되어가고 있으니까 지적하고 고발한다”는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시안들이 일부 시각을 유난히 과장한 ‘비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공감과 결과를 맺지 못하는 괜한 물의에 불과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미 부자나라권(圈)에 있기 때문에 못사는 사람들 이름을 빌려서 하는 ‘정부괴롭히기’는 사실은 일부사람들의 정권욕심의 방편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젊은이들의 꿈은 아름다웠겠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사이 경험 좀 얻은 셈치고, 사회에 죄송함을 느끼면서) 그 꿈들을 접고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8. ‘질서(秩序)’는 높게 평가(評價)해야 하는 귀중한 문화/문명이다

사실 우리는 <특히 한국이라는 전체 역사를 두고 ‘꾸준히 질서(秩序)가 잡혀왔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믿고 옛 가치관 속에서 혼란 없이 활동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강의 기적’ 등을 일궈낸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조상들의 숨은 덕택을 모르고, 즉 꾸준히 유지된 ‘단군질서’의 고마움을 모르고 ‘질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냈는데, 다른 나라들을 볼 때,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당연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극렬저항을 했더라면 우리의 경제발전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면 그 도약을 그 당시까지 남아 있었던 ‘단군질서’의 덕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토착된 율법과 널리 알려진 ‘동양의 질서’ 덕으로 일본은 흔들림 없이 명치유신을 할 수가 있었고, 우리나라 역시 어려움 없이 발전했으며, 최근 중국에서도 경제기적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5년 전부터 한국을 달구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론’ 역시 ‘국제 여론’의 영향일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죽일 권리가 없다”는 것이고 살인자라고 해서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면 “쌍방이 다 살인자(殺人者)”라는 것이다.

<정부와 범죄자를 대등하게 취급해 쌍방이라니 작금에 와서 언론이 (무계가 없을 수가 없는) 정부 또는 대통령이 하는 일을 일반인과 맞세우는 정체비하의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대통령을 정부 또는 나라와 분리해서 ‘대통령의 입장’이란 용어를 감히 쓰고 있는데, 모든 법적결정은 종국에 있어서 나라가 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정국, 또는 개인신상의 문제가 아닌 한(限) ‘대통령의 입장’이란 용어는 대통령을 정부와 분리하고 왜소화하고 나아가서는 나라를 모독하는 자세인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해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살인 등> 반(反)사회적인 중죄를 지은 죄수들이 교도소에 갇혀, 고령이 돼서 사망할 때까지 몇십년을 국민세금으로 급식해주고,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전(全)세계 역사를 통해 얻어낸 다시 말해 인류가 쓰라린 경험에 의해서 만들게 된 <극악범죄인 들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사조가 국제 규모로 커가고 있는 것이다.

9. 대통령 임기 4년제 우리에게 맞지 않아

작금 헌법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회의원 1/3이상의 좌익세력 및 그의 협력 기능세력이

있으니 보수성향의 사람들이 하는 어떠한 개헌시도도 저지될 것이고 좌익이 찬성하는 개헌은 10년 후(后)일지라도 ‘6.10’ 등 ‘날짜’ 나 ‘이름’ 달린 대단한 것으로 둔갑해서 부활하는 등 복선이 있을 것이니 차라리 헌법의 현상유지만이 최선의 것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는 ‘외국추종’은 경솔한 것이다.

임기 4년제는 대통령이 국정(政情)의 장기계획을 할 수 없어서 집권자로 하여 선거대비에만 몰입하게 해 4년 임기제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미국이 4년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가려는 생각들이 있으나 역사가 긴 느긋한 나라들에 비해서 북미 동해안의 ‘13개 강대주(强大州)’들이 나서서 했던 바 미국의 출발은 더 소란스러운 것이었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강대주(州)들이 득실거리 임기를 4년으로 하기도 어려웠겠지만 우리는 만사를 더 길게 보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4년 임기가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20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에 문화적으로 예속되고 있었던 문화후진국이었다. 그런데 ‘싸울아비’들의 기술과, 세계를 놀라게 한 일본도(日本刀)의 강(鋼)의 질(質), 그리고 극동권 바탕 윤리의 ‘순수’가 만들어낸 ‘정신력’ 등으로 해서 일본은 드디어 제국주의 열강 반열에 끼게 됐고, 그들의 무리한 서구식(무력성) 제국의 형성 시도는 결국 아시아권 여러 나라에 100년을 두고도 없어지지 않을 폐(弊)를 끼치게 됐던 것이다.

10. 일본은 문화 열등감에서 서양문명을 광신(狂信)

<전쟁을 안했던 단군의 자손이기에 오늘날 우리는 국제활동에서 유리하다> <원래 극동의 ‘제(帝)’는 백성을 지도하고 정신질서를 가르치는 비(非)무력의 하늘사자(使者), 즉 무당으로 외경(畏敬)만 받았지 무력을 이끌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력성 제국과는 정반대인 것으로 이 양자(兩者)가 같은 명사, 즉 ‘제’라는 같은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서양사람들이 아시아 근세의 마지막 단계만 보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일본은 예로부터의 <문화> 열등감으로 해서 새로 만난 서양문명에 대해서 광신(狂信)을, 그리고 현실초월이 만들어 준 ‘동경’을 갖게 됐다. 그래서 순수하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이상적인 것을 ‘서양식 교육’이라고 정제(精製)해서, 그 때까지 인류에게 없었던 동경(憧憬) 섞인 과학과 ‘공학, 그리고 절대진리의 믿음을 결들인 이상교육’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한 동안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에는 무척 청결하고 인류평균을 크게 웃도는 절대적(絶對的)인 ‘이상’과 ‘순수’를 심게 된 것이다.

그들은 이 이상교육을 ‘신교육’이라고 일본, 한국, 및 대만에 심게 되었는데 오늘날의 지나친 순수추구의 뿌리를 심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특이한 민족 경험이었었는데 그것은

또한 놀라운 정신자산이 되기도 했다.

11. ‘극동의 순수(純粹)바탕’ 때문에 착시(錯視)해서 만들게 된 일본의 신(新)교육

그 후 전(全)세계적으로는 반대로 실리를 찾는 교육을 강화해 오늘날 한국 등이 이를 따르게 됐던 것이다. 다시 말해 물질지상(至上)주의에 따라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물질문명’이 인류가 문제가 있을수록 더 찾게 되는 정신문명을 넘어 설 수는 없는 것이다. <원래 인류의 생존여건은 언제나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 보다는 항상 ‘생각’이 인류의 행복을 결정해 왔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작금 극심한 경제난으로 해서 거리에 나왔다 시피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인문계 강의’가 기술교육보다 오히려 더 인기가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일본. 나아가서 한국 역시 극동권(동이족) 조상들이 남겨 준 지난 5,000년의 정신문명에 대한 재(再)발견과 재(再)평가가 없는바 지금까지의 ‘서양문명’이라는 픽션적(的) ‘동경’의 바탕만을 갖고는 계속 따라가는 자리에만 있게 되서 앞으로의 인류문명을 이끌어 갈 수도 없으려니와 세계문제에 대한 기여도 <지엽적인 감각문화를 빼고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극동권(圈)은 결국 역사 긴 그들 자신의 선대(先代)들의 문화성과를 ‘모르기 때문에 버렸고’, 번번히 구미권(圈)에서 그것을 다시 손질해서 구미의 과학/기술 이름으로 서방언론이 환전(喧傳)하는 것을 보아야만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된 듯하다. 정신적으로 피를 바꿔 새로 탄생이라도 한 듯, 서양인들보다 오히려 더 ‘서양문명’을 신봉하게 된 것이다.>

‘전(全)세계적인 사조의 기복’ 파악(把握)은 20년, 30년을 넘는 장기관찰 및 장기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전(全) 지구단위의 종합관찰을 통해서 겨우 얻어진다고 할 것이다.

12. 예산이 남아돌아 보행방향을 바꾸게 한 나라

New Left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여러 나라에서 좌파운동으로 이어졌고 전에는 주로 노동운동과 제휴했지만 그 후에는 Social Activism 형태로 되어갔고 급기야는 新좌파가 되어 ‘Hippie’ 및 ‘Flower Child’의 형태로 주로 반전운동 등으로 존속하고 있다.

소련의 사회주의 포기가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는데도 일부사람들에게 그 뿌리가 남아 있어서, 오늘 날의 사회불평을 과장해서 후배에게 대를 물린 사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회전복 목적으로 연소자들을 세뇌하곤 했던 좌파들의 현실적이 못된 불평은 앞으로도 무형의 사회부담으로 남고, 장래에도 그 뿌리를 기반으로 젊은이들을 또 좌경화시키려는 경향이 남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상과 이념의 추구가 半세기를 지나 또다시 젊은이 및 식자들의 꿈이란 군불(fire)을 지피, 오늘날 버락·오바마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이라면 또 다시 현실에 실망하게 된 지나친 낭만의 무리들로 해서 그는 곧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오바마에 투표한 공화당의원들과 함께 많은 지성인들이 무리한 꿈을 꾸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하루 빨리 이성을 되찾아 현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10년씩 뛰어넘으면서 관찰하면 더 잘 보이는 사실들이 있다.

작금 한국 60년의 발전을 자연스레 들어내면서 현재 노면(路面)과 지하철역 계단 등에 붙여놓은 ‘우측통행’이란 인쇄물의 디자인과 특히 색채배분 등은 놀라울 정도로 앞서가는 조화여서 우리들의 눈을 기쁘게 하고 있다. 우리의 발전은 TV에서 보는 ‘먹고, 마시고, 가라오께하고, 허리 흔드는 것’만이 아니고 지난 60년을 체념하고 지난 우리들 서민, 즉 ‘아마추어-문화평가자’들에게 까지 미소를 띠게 할 만한 우아한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 발전’에 때돈을 번 갑부들도 이 사회/언론/좌파의 지나친 ‘투명요구 집착’으로 마음 놓고 <외국이 아닌> 한국 시정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또한 여러 구석에서 ‘복지’를 표방해서 정부 중심으로 강제적으로 각종 명분을 세워 수탈(收奪)하는 경향이 계속된다면 <이번에도(2009 말(末)) 의료보험 월정 납입금이 올랐고, 신년에 다시 약 5%가 오른다고 한다.> “빼앗아서 나눠 준다”는 복지제도가 그 많은 상대적 빈곤자의 가난한 살림과 텅 비어있는 마음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 옛날부터 굶주려도 땀땀했던 가난한 자들의 정신자세마저 해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13. 예산을 항상 모자라는 것으로 위장하는 정부·언론

경제발전에서 온 이익은 아래로 즉 민간으로 흘러가야 모든 것이 건전하게 되는 것인데 정부가 그것을 움켜쥐고 집중적이고 집단적인, 다시 말해 전시적인 사회복지 생각만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정부는 <언론을 낀 ‘정부지원’ 주장자들의 아우성 부각 및 정당화 조작으로 이래저래 예산이 항상 모자라는 것으로 위장하고 국민을 세뇌해> 살얼음 위에서 주무르게 된 거대예산을 최대한 예쁘게 그리고 모양 좋게 집행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일의 본질은 개인 개인 자기 사정에 맞게 살림을 하고 그러한 ① ‘생활’들의 자연스런 집합체가 도시 외관을 형성해가는 것이 아니고 알뜰하게 ‘도시디자인’이라 하여 도시의 외관을 공공단위로 간섭하고, ② 강제 ‘의료보험’으로 해서 절약체질 가구는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물고, 그래서 더욱 살림에 쪼들려 본인부담분이 무서워서라도 병원을

줄여가게 되고, 오히려 가난하다고 진찰비가 크게 경감되는 계층일수록 병원을 더 쉽게 다니는 등 ‘공공’이 몰아치는 전체주의 경향이 강해질수록 무리가 생기는 것이다.)

‘관(官)’이 거대예산을 움켜쥐고 쓰고 있는 세수(稅收)낭비의 보편화사례(事例) 중 하나가 연말마다 보게 되는바 예산의 ‘길바닥 처바르기’가 됐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그 근본에 있어서 ‘누가 그 돈으로 쇼핑을 줄이느냐’ 하는 ‘집행액에 비례하는 쾌감을 갖게 되는’ 관직자들의 쇼핑홀릭(shoppaholic)의 양상인 것이다.

14. 50년간 배운 것 없이 흘러다닌 한국의 현주소

그 과잉예산은 최근 한국산업의 ① 폭발적인 규모확대, 기술발달에 따른 모든 ② 돈의 흐름의 전산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drive: 밀어붙임’ 등을 통해 돈의 흐름을 ③ 투명하게 파악하므로 해서 생기게 된 세입의 급증 때문인데 그 세입의 급격한 증가를 <근본적으로 세율을 낮추거나, 가장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탕감을 통해 산업보호를 해가면서> 그 돈이 시정에 흐르게 해서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에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과다예산을 끌어안고 정치계나 노동계(界) 등 ‘입김’ 센 계층의 여러 형태의 정치꾼을 감당 못하게 되면 하는 수 없이 예산을 배당해주고 있는 양상이 된 것 같다.

지하철 역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저처럼 평지풍파로 일을 저질러 예산을 써가면서 통행방법을 교육하는 사례가 있나하고 생각하게 된다.

외양만 화려하고 정신은 더욱 더 메말라가는 속에서, 그리고 명품이라는 형용사를 인품에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이 ‘인간경시’ 시대에 지금까지의 방향 잘못 잡힌 잡스런 경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국 겨레(동이족(東夷族))의 정신적인 고향인 마고성(麻姑城)과 황궁(黃穹)정신에의 ‘복본(復本)’의 맑음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